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 KOREA NU10

K O R E A   N A T I O N A L   U N I V E R S I T Y   1 0

JULY 2024  
VOL.24



MAIN ISSUE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 내일을 밝히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양성하다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 Cultivating Talent to Illuminate Tomorrow and Change the World

발 간 등 록 번 호
11-7000126-000051-08

ISSN 2635-411X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over Story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  
내일을 밝히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양성하다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  
Cultivating Talent to Illuminate  
Tomorrow and Change the World

『Korea NU10 Magazine』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 국가거점 국립대학교가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Korea NU10 Magazine』 is a newsletter issued by  
10 national universities representing Korea.

발행일 2024년 7월(통권 제24호)  
발행인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제 작 굿디자인연구소(T. 051-796-6600)

Date of issue 07/2024 (Vol.24)  
Publisher The President of the Presidential Council  
of the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Production Good Design Institute (T. 051-796-6600)

메인 이슈 Main Issue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	04
내일을 밝히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양성하다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	
Cultivating Talent to Illuminate Tomorrow and	
Change the World	



K-NU10 뉴스 News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18
Korea NU 10, 2024 1st Regular Meeting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19
Korea NU 10, 2024 2nd Regular Meeting	



K-NU10 회원대학 소식 Member News

전남대학교 CNU	22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BNU	24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NU	26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NU	28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30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KNU	32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NU	34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 GNU	36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NU	38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NU	40
Seoul National University	

K-NU10 회원대학 소개



#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 내일을 밝히고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양성하다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  
Cultivating Talent to Illuminate  
Tomorrow and Change the World

국가거점국립대학교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학문 다양성과 기초학문 연구를 위한 주요 학과 구성과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 깊이 있는 학문 연구와 융합교육으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 미래를 선도할 남다른 리더를 육성하고 있다.

Through continuous innovation, Korean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cultivate outstanding talent to driv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local communities. With a diverse array of major disciplines and a strong emphasis on fundamental academic research, along with an excellent faculty, these universities conduct in-depth scholarly research and provide interdisciplinary education. This approach nurtures the kind of talent society needs and develops exceptional leaders who will lead the future.

##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학문 간 경계를 넘어 미래인재 양성

#### 전남대, 융합 전공 확대

전남대학교는 학문 간 경계를 허무는 과감한 시도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융합전공'을 통해 인문과 자연, 공학과 예술 등 한계를 두지 않고 학문 간 자유로운 결합과 융합을 통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을 양성하는 것이다.

'융합전공'은 현행 학과(부) 체제의 다소 경직된 구조에서 벗어나,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학문 간 융합 시너지를 얻고, 신기술을 접목하며, 산업체의 전략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교육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대는 이 '융합전공'을 2018년 국립대 최초로 공모제를 통해 개설하면서 화제가 됐다. 2018년 4개로 시작했던 융합전공은 2024년 현재 8개로 확대됐다.

초기 융합전공은 유사 계열의 학문으로 구성됐지만, 최근 개설된 '융합전공'일수록 인문-자연, 예술-공학 등 유사점이 없어 보이는 학문 간의 만남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 개설된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전공'만 보더라도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인공지능학부, 빅데이터융합학과, 통계학과, 행정학과, 디자인학과, 의학과 등 10개 학과(부)가 참여하며 광범위한 학문 간의 연계를 보여주고 있다.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 융합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주전공으로 졸업할 수도 있다. 현재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생은 100여 명이다.

전남대는 융합 전공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보다 다양한 조합의 학문 간의 결합을 독려하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Expansion of Interdisciplinary Majors at CNU for Nurturing Future Talent Beyond Academic Boundaries

CNU cultivates future leaders through bold initiatives that lead the way and transcend academic boundaries. Through interdisciplinary majors, the university promotes the free combination and integra-





tion of humanities, natural sciences, engineering, and arts, aiming to nurture specialists demanded by the times.

Interdisciplinary majors aim to overcome the rigid structure of current departmental systems, swiftly adapting to societal changes, and leveraging the interdisciplinary synergy between academic fields. They integrate new technologies and tailor education in collaboration with industrial strategic initiatives.

CNU gained attention by pioneering these majors through a competitive process in 2018, starting with four interdisciplinary majors and then expanding to eight by 2024.

Interdisciplinary majors used to be composed of closely related disciplines. However, recent additions demonstrate a tendency to generate synergy through seemingly disparate academic intersections such as humanities and natural sciences and arts and engineering. For instance, the newly established Data Science Interdisciplinary Major showcases extensive cross-disciplinary collaboration, involving ten departments including the Graduate School of Data Science, Department of AI, Department of Big Data Convergence, Department of Statistic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Design, and Department of Medicine.

Any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the program can pursue in-

terdisciplinary major courses regardless of their primary field of study and may graduate with it as a dual major or primary major. Currently, over 100 students are enrolled in interdisciplinary majors available at CNU.

Anticipating growing demand, CNU plans to further expand and encourage diverse combinations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전북대, 학생 전공 선택 ‘원하는대로, 바라는대로’

전북대학교는 지난해 비수도권 30개 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핵심 사업인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모집단위를 광역화하고, 전학이나 전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학생 누구나 원하는 전공 분야를 마음껏 선택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현재 106개 모집단위를 내년부터 46개로 줄이고, 2028년까지 26개로 줄이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추진한다. 최근 발표된 2025학년도 입시전형안에 이 혁신안이 반영됐다. 공학계열, 농업생명과학계열, 경상계열, 자연과학계열, 경상계열 등 학과 중심이 아닌 계열로



모집해 1학년 때에는 자기 탐색을 하고, 2학년에 자유롭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모집단위 광역화는 거점 국립대와 같은 규모가 큰 대학에서는 추진하기 힘든 혁신 중 혁신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전북대는 전학·전과 비율도 현재 20%에서 30%, 50%로 대폭 늘리고, 다중전공 신청도 성적 기준 없이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다. 또한 학문의 다양성을 위해 다중전공 신청도 성적 기준 없이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지역산업을 이끌 융·복합 인재양성을 위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도 현재 37개에서 107개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학생이 직접 설계한 ‘학생설계 마이크로디그리’ 과정도 개설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전북대에 개설되지 않은 전공도 학생이 스스로 설계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Your Major - Your Future - Your Choice’

As part of its selection for the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a key government initiative to nurture 30 non-metropolitan universities into world-class institution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its President, Dr. O-Bong Yang, have embarked on a project to establish a new, more student-centered educational system at JBNU. Two core goals of this project are to broaden admission units and to allow students to more freely transfer or change majors, enabling them to choose and study in fields of their choice.

To this end,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lans to consolidate its current 106 admission units into 46 broader units by next year, and then to combine those into only 26 units by 2028. This innovative strategy was outlined in President Yang’s recently announced 2025 admission plan. Students will be recruited by academic division, such as engineering, agricultural and life sciences, business, and natural sciences, rather than by specific departments. In their first year, students will explore their interests, and in their second year, they will freely choose a major that suits their aptitudes. This broadening of admission units presents particular challenges for large national universities like JBNU, but will be a significant innovation.

Additionall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s seeking to drastically increase the percentage of students transferring between departments or changing majors from the current 20% to 30%

and 50%, respectively. Furthermore, it will revise policies to allow students to apply for multiple majors without any grade prerequisites, fostering an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freely choose the fields they wish to study.

Finally, to cultivate interdisciplinary talent and develop the future leaders of new industries in the Jeonbuk region and beyond, the university plan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microdegree programs it offers from the current 37 to 107. It will also introduce new ‘student-designed’ microdegree programs, allowing students to design and pursue new majors not currently offered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 제주대, 길 위에서 길을 찾다…‘제주올레길과 자아성찰’

제주대학교는 신입생을 포함한 재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3월부터 ‘제주올레길과 자아성찰’ 교과를 신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올레길과 자아성찰’ 교과는 총장 및 교수를 포함한 학내·외 인사들이 멘토로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제주올레길을 완주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주올레길을 함께 걸으며 학생은 멘토들로부터 자신의 진로, 전공 선택, 대학 생활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올레길 위에서 인생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 수업은 교육부의 무전공, 학과벽 허물기 등과 같은 학생 모집 광역화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추후 전공을 선택하고 학업과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제주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사)제주올레 이사장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올레길을 걸으며 공부로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제주의 향토 문화, 지질, 역사를 보고 느끼며 장래를 그려나갈 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글로벌 30 대학’ 지정 사업에 제도전하는 제주대는 대학 내 전공벽을 과감히 허물고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변화의 최우선 기조로 삼았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 이번 수업이다.

김일환 총장은 “이런 노력들이 한국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피말리는 입시 경쟁 속에서 정말 필요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이다. 그런 의





미에서 대학 교육이 먼저 학생들에게 인성과 자신감, 목표 의식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 우리 학교의 노력이, 제주도의 작은 ‘남풍’이 한국 교육에 큰 울림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Finding the Way on the Road... ‘Jeju Ollegil & Self-Reflection’

JNU has operated ‘Jeju Ollegil & Self-reflection’ course in order to systematically support career and academic design of JNU students. Including JNU president, Important figures the inside and outside of JNU participate as mentors in the “Jeju Ollegil & Self-reflection” course. It is conducted by completing all the Jeju Ollegil tracking course during the spring semester. While walking with mentors along the Jeju Ollegil, JNU students can seek advice on their career path, major choices, and college life. The course has been operated so that students can design a “path of life on the Ollegil” in this course.

This class was planned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s policies on broadening student recruitment areas, such as allowing undecided majors and breaking down departmental barriers. It originated from the recognition that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need support in selecting their majors and effectively planning their studies and futures.

Seo Myeongsuk, the chairperson of the Jeju Olle Foundation, who created the Jeju Olle Trail, expressed her hopes that “young people who will lead Jeju's future can recover from the stresses of study while walking the Olle Trail, and envision their future by experiencing the living local culture, geology, and history of Jeju.”

Jeju National University, reattempting to be designated as a “Glocal 30 University”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prioritized breaking down barriers between majors within the university and ensuring maximum learning choices for students. This course is a symbolic effort to demonstrate this change.

President Kim Eel-hwan stated, “We hope these efforts will lead to innovations that change the paradigm of Korean education. It is time to reconsider whether our students are missing out on essential studies due to the intense competition for university entrance. In this sense, university education should first and foremost instill students with character, confidence, and a clear sense of purpose. We hope our school’s efforts, like a small ‘south wind’ in Jeju, will create a significant resonance in Korean education.”



###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지역사회혁신 교과목’, 지역 참여·지역문제 해결 앞장서

충남대학교가 국가 거점국립대학교로서 재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함께할 수 있는 ‘지역사회혁신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대 지역사회혁신 교과목은 지난 2019년 2학기 처음 도입한 제도로 재학생이 이론수업과 현장 활동을 병행하며 스스로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고,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연계해 직접 사회의 문제를 발굴해 사회의 혁신과 공헌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정규 교과과정이다.

제도 도입 5년 차를 맞은 지역사회혁신 교과목은 전공을 이수하고 전공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고,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어 교육과 체험, 지역사회 혁신, 사회공헌까지 ‘일석사조(一石四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9년 2학기 9개 교과목을 편성해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2020년 22개, 2021년 27개, 2022년 32개, 2023년에는 총 34개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참여 학생 수 또한 2019학년도 2학기 151명을 시작으로 2020년 486명, 2021년 587명, 2022년 647명, 2023년 786명 등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개설된 교과목 역시 행정과 시민 참여, 소비자와 유통, 스마트시티 창의설계, 대전학과 디지털콘텐츠, 한문 문학과 지역문화, 산림휴양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와 재학생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매 학기가 끝난 뒤에는 교과목을 통해 학습·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우수 사례를 도출하고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Community Innovation Course

##### Leading Regional Participation and Problem Solving

As a national hub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s offering the ‘Community Innovation Course’ which enables students to contribute to the community, enhance their problem-solving skills for local issues, and gain diverse field experiences simultaneously.

The Community Innovation Course at CNU, first introduce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9, is a regular curriculum designed for





students to simultaneously engage in theoretical lessons and field activities. Through this course, students develop their problem-solving skills, identify issues within the community, and collaborate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reby actively contributing to community innovation and development.

Now in its fifth year, the Community Innovation Course is recognized as an educational program that provides a four-in-one effect: completing major studies, gaining diverse practical experiences related to one's major, applying these skills in the field, and contributing to community innovation and social engagement. This program is highly valued for integrating education and experience with community innov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Since its pilot launch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9 with 9 courses, the Community Innovation Course has expanded significantly, with 22 courses in 2020, 27 in 2021, 32 in 2022, and a total of 34 in 2023. The number of participating students has also shown rapid growth, starting from 151 students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9 to 486 in 2020, 587 in 2021, 647 in 2022, and reaching 786 in 2023. The courses provide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includ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civic engagement, consumer affairs and distribution, creative design for smart cities, digital content in

Daejeon studies,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and local culture, and forestry and leisure studies. These courses involve participation from professors across diverse fields and active engagement from enrolled students.

In particular, exemplary cases and local problem-solving strategies based on curriculum from research outcomes are derived and presented at the end of each semester. CNU aims to ensure that these achievements translate effectively into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field.

####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충북대, 내가 설계하는 전공 기획하는 학기

끊임없는 사회 변화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함양한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대학교는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나 진로에 기반하여 독자적인 학습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전공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는 학생설계전공, 한 학기 동안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정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설계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설계전공인 「PIONEER」전공은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기획·구상해 학교의 승인을 받아 개설되는 전공으로 2016년 문화관광경영 전공을 시작으로 2024년 융합생명자원학 전공 등 현재까지 총 9개의 학생설계전공이 개설됐다. 학내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63.1%의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선호하며, 학생설계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4.21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에 소프트웨어경영학 학위를 취득한 학생이 자신의 전공 분야(데이터 직무)로 취업하여 학생설계전공의 성과를 빛내기도 했다.

학생설계학기를 위해 올해 신설된 「개신 프론티어」 교과목은 학생들이 정규 학사과정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도전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설정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설계 교과 모델이며, 1학기 현재 48명의 학생들이 수강 중이다.

충북대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학생설계전공 및 학생설계학기의 체계적인 지원 및 운영 개선을 위해 1대1 전문가 컨설팅, 이수 학생 간담회, 성과발표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지속적인 의견 수렴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CBNU, Student-designed Major & Semester

In order to cultivate creative converged talents who have knowledge in various fields in this ever-changing socie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BNU) is focusing on student-centered, self-directed education. To this end, CBNU operates a student-designed major course in which students set their own learning goals based on their needs or careers and design new major curriculum for themselves, and a student-designed semester that allows them to receive credits by setting their own challengeable assignments during the semester.

The “PIONEER” major, a student-designed major course, is opened with the approval of CBNU after students plan and orga-

nize their own curriculum. Nine student-designed majors have been opened so far, starting with the Cultural Tourism Management major in 2016 and the Convergence Bio Resources major in 2024. According to a student survey, 63.1% of students prefer to choose their major on their own, and satisfaction with student-designed majors was high at 4.21 points (out of 5). In particular, a student who acquired a degree in software management in February was employed in his/her major field (data job), showing the results of student-designed majors.

The 「Gaeshin Frontier」 course, which was newly opened this year for the student-designed semester, is a curriculum model in which students do not need to take regular academic courses. Instead, they set their own assignments to academically challenge themselves and receive credits. 48 students took the course during the spring semester.

CBNU is conducting a one-to-one expert consulting, a meeting with students, and a performance presentation to systematically support and improve the operation of student-designed majors and semesters. And it is also continuously collecting feedback and promoting activation programs in order to encourage students to apply.

####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강원대 ‘미래융합가상학과’, 융합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강원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학문 간 융합과 신산업 대응을 목표로 ‘미래융합가상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융합가상학과는 급변하는 사회와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학문을 융합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이다. 미래융합가상학과는 2개의 정규학과가 참여하거나, 다른 대학교와 융합하는 형태로 설치되며,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특히 모듈형 기반의 융합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다. 미래융합가상학과는 2018년 4개 학과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공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3D프린팅다빈치학과, 글로벌한국학과, 지식재산권학과 등 5개 학과, 2022년에는 공연예술무대제작학과, 문화도시학과,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등 7개 학과가 추가되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연기예술학과, 정밀의료융합학과, 강원형반도체융합학과 등이 설치되어, 현재 총 28개의 학과가 운영 중이다.



특히, 미래융합가상학과는 다전공 포트폴리오 공모전, 학습공동체 활동,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등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융합가상학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원대학교는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통해 미래 교육의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Program of Future and Virtual Convergence' opens a new horizon for convergence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s operating the 'Program of Future and Virtual Convergence' to respond to new industri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ogram of Future and Virtual Convergence is an innovative program to foster new talent by fusing various disciplines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needs of society and industry. The Program of Future and Virtual Convergence is established in the form of two regular departments participating or merging with another university, and can be completed as a minor or double major. In particular, students are able to study their desired field of study in more depth through the modular-based convergence curriculum.

The Program of Future and Virtual Convergence started out with four departments in 2018. In 2021, five departments were added, including the Departments of 3D Printing Da Vinci, Global Korean Studies, and the Dat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2022, seven departments were added, including the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and Stage Production, Culture and City Studies, and AI Cyber Security. In 2023 and 2024, the Departments of Acting Arts, Precision Medicine, and Semiconductor in Gangwon were established, making it a total of 28 departments currently in operation. Particularly, the Program of Future and Virtual Convergence supports students to develop capabilities that combine theory and practice through extracurricular programs such as multi-major portfolio contests,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and experiential learning programs. KNU makes continuous efforts to foster talent needed by the future society by providing field-oriented education through strengthening connections with industry and the local community. The Program of Future and Virtual Converge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nurturing convergence-type talents suitable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will continue to establish itself as a leading university in nurturing talents of future education through constant innovation and development.



###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경북대, 727개의 전공 모듈 운영

#### 시대 변화에 유연한 교육과정 모듈 활용하여 교육 선택권 확대

경북대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다. 2023 학년도부터 전공 능력별 교육 과정 모듈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북대는 현재 전공으로 3,400개가 넘는 교과목을 활용하여 527개의 주전공 모듈과 212개의 마이크로 모듈을 개설했다.

모듈은 학습블럭 형태로 제공되며, 학습블럭은 하나의 전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4~6개의 교과목 묶음을 말한다. 학생들은 최소단위 교과목 묶음인 학습블럭을 선택하여 자신의 미래에 맞춘 교육과정 설계를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계된 교육과정은 그 연관성과 완성도에 따라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양한 심리학 데이터를 설계, 측정 분석하고, 인간행동의 원리를 인지심리학 기반으로 심도있게 이해하는 과목으로 구성된 인지융합 마이크로전공 모듈과 인간행동분석 마이크로전공 모듈, 그리고 관련하여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분야 전공 능력을 배양하는 SW입문 마이크로전공 모듈과 AI 입문 마이크로전공 모듈을 모두 수강한 경우, 기존 전공에 더해 인지과학 융합전공(Convergent Major of Cognitive Science) 학위를 인정받는다.

경북대는 학생이 주도하는 학습 능력 배양을 목표로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인 교육과정 모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인재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학습블럭 및 모듈기반 교육과정은 자신의 기존 전공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NU) Operates 727 Major Modules

#### KNU is expanding educational choices by utilizing flexible curriculum modules adaptable to the changing tim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innovatively redesigning its educational curriculums to flexibly adapt to students' career choices, thereby expanding their options for major selection. Since the 2023 academic year, the university has been developing and offering educational curriculum modules tailored to major-specific competencies. Currently, utilizing over 3,400 courses, KNU has established 527 primary major modules and 212 micro modules.

Modules are provided in the form of learning blocks, which refers to a cluster of 4 to 6 courses that cultivate a single major competency. Students can autonomously design their educational paths tailored to their future by selecting these minimal unit course cluster learn-



ing blocks. Such designed educational paths can be recognized as majors based on their coherence and completeness with regard to single competencies.

For example, upon completing courses in the Cognitive Integration Micro Major Module, which involves designing, measuring, and analyzing various psychological data and deeply understanding the principles of human behavior based on cognitive psychology, along with the Human Behavior Analysis Micro Major Module, as well as related introductory modules in Computer Science, Software, and AI fields such as the Software (SW) Introduction Micro Major Module and AI Introduction Micro Major Module, students can be awarded a degree in the Convergent Major of Cognitive Science in addition to their existing major.

In these ways, KNU not only continues to develop systematic and specialized educational modules aimed at fostering student-driven learning capabilities, but it also strives to create educational environments to cultivate the skills most demanded by our current times. These curriculums, based on learning blocks and modular education, allow students the freedom to choose, regardless of their existing majors, and this flexibility is thereby expected to greatly assist students in expanding their career paths.



##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경상국립대, 다양한 학생 중심 학사제도 운영 마이크로디그리, 개척학기제 등 운영

경상국립대학교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 중심 학사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대학의 기본 임무는 교육이며, 이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이다. 학생 중심의 대학은 곧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상국립대는 신입생들이 자율전공 또는 무전공으로 입학하여 충분한 전공 탐색의 기간을 보내고,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모집단위 광역화(전공자율선택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상국립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학생 주도 교양 교과목 기획전을 통해 설계된 우수 공모작을 신규 교과목으로 개발·편성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개 이상의 학과 교육과정을 연계 또는 융합하여 운영하는 '연계/융합전공'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자체, 산업체,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이 원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융복합 사고능력 함양과 시대에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2학년도에 도입한 마이크로디그리는 현재 항공드론, 빅데이터, 반도체 등 12개 분야 5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 대학 30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존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인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을 확대하고, 융합교육 전담조직인 '우주항공방산융합학부'와 '개척융합학부'를 신설하여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개방형 융합 교육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경상국립대 개척학기제는 학생들이 수업 대신 스스로 교과목을 설계하고 자기주도적 활동을 한 학기 동안 수행하면서 교양 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2019년 2학기에 국립대 최초로 도입한 학사제도이다.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perating Various Student-Centered Academic Systems: Microdegree, *Gaecheok* (Pioneer) Semester, Etc.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operates various academic systems centered around students, who are the consumers of education. The primary mission of the university is education, with its consumers as the students.

A student-centered university means providing the education students desire. GNU is preparing a broadened admission system (major autonomy selection system) where new students can enter with an undeclared major or no major at all, providing them plenty of time to explore different majors and finally choose the one they want.

In addition, GNU operates flexible academic systems to expand students' options for choosing their majors. Since 2022, the university has been actively offering consumer-centric education by developing and organizing new courses based on outstanding proposals designed through student-led liberal arts subject-planning exhibitions.

GNU has also established linked/converged majors that connect or converge the curricula of two or more departments, fostering talents wanted by the reg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industri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foster future talents with convergent thinking abilities that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GNU introduced the microdegree in the 2022 academic year. Currently, it operates 53 courses in 12 fields, including aerial drones, big data, and semiconductors, which can be taken by anyone regardless of their major.

Furthermore, GNU has been selected for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which aims to expand existing consumer-centered curricula, such as converged and student-designed majors. The university plans to establish dedicated convergence education organizations,

such as the Department of Convergence Aerospace & Defense and the Convergence Department of Pioneer, preparing for a leap toward open convergence education that breaks down the barriers between departments.

The GNU *Gaecheok* (Pioneer) Semester System is a program where students do not choose lectures but design their own courses and carry out self-directed activities for a semester, earning credits for liberal arts or major GPA. This academic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9, making it the first of its kind among national universities.

##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 융복합 인재 양성 위한 'PNU 펜토미노 교육시스템' 도입 학문 경계를 넘어 미래형 교육혁신 추진

부산대학교는 학과 중심의 경직된 학사구조 및 획일화된 학사제도와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 융복합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혁신으로 'PNU 펜토미노(pentomino) 교육시스템'을 도입한다.

펜토미노라는 명칭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학생 스스로 자신만의 전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생을 중심에 두고 고등교육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교육체계로서 미래형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부산시 7대 전략산업과 의생명·바이오 산업을 선도해 나갈 우수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핵심수단이 될 전망이다.

'PNU 펜토미노'는 동일한 학문적 주제의 3~5개 교과목 조합으로 구성된 '모듈'과 진로 및 목적에 따라 모듈을 조합해 구성된 '트랙'을 기본 단위로 하는 교육과정 체계를 뜻한다. 교과목 단위로 졸업 이수를 위한 학점을 채우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학생들이 다양한 모듈과 트랙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전공 교육과정을 디자인하고 세부 전공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교육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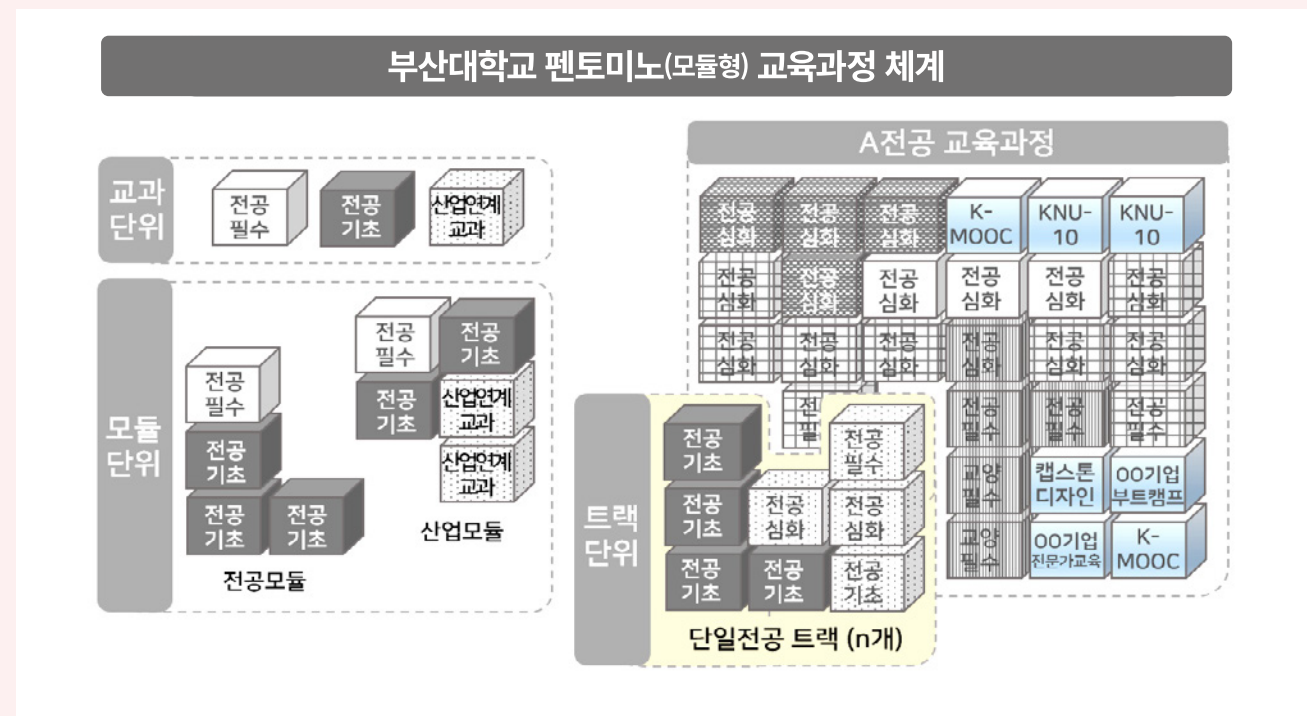
특수한 목적 및 진로에 따라 모듈을 조합한 다양한 전공 트랙을 신설하고 전공 교육과정 로드맵을 제공해 학생들의 세부 전공 전문성 강화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부산대 13개 단과대학에서 65개 학과가 참여해 2025학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글로벌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된 부산대는 부산을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로 만들고, 대한민국 남부권 발전을 이끄는 거점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Edu-TRIangle(에듀-트라이앵글)'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정해, 펜토미노 교육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전략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다.



The 'PNU Pentomino' system is based on an educational curriculum comprising 'modules' and 'tracks'. A module consists of a combination of 3-5 courses on the same academic theme, and tracks are composed of combinations of modules tailored to students' careers and objectives. Unlike the traditional method of

Last November, PNU was finally selected for the government's Glocal University project. With the vision of 'Edu-TRIangle Creating a New Future Education City', PNU aims to transform Pusan into a new future education city and serve as a central university driving the development of the southern region of South Korea. The introduction of the Pentomino Education System is a key part of achieving various strategic goals.



SPF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목표는 장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연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서울대는 앞으로도 개도국 유수 대학과 교육 및 연구 협력을 매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속 육성하고, 고등교육의 공적 원조를 통한 글로벌 사회공헌 실현 및 상생발전의 발판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This scholarship program is designed to offer comprehensive and long-term financial support from the university to enable talented graduate students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pursue their doctoral degrees without difficulties. Upon selection, SPF scholars

The long-term goal of the SPF program is to establish a virtuous cycle where SPF alumni foster a deep understanding and affection for Korea, strengthening the cooperative network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research professionals. Through the continuous nurturing of Korea-friendly experts who can act as intermediaries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collaborations between prestigious univers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SNU, the SPF program aims to contribute to global society through higher education aid and pave the way for mutual growth and development.







## 공공의료·필수의료 인재 육성 관련 공동 대응 방안 제시

### Presentation of Joint Response Plans for Training Personnel in Public and Essential Healthcare

##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24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Korea NU 10, 2024 1st Regular Meeting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일한 제주대학교 총장, 이하 협의회)는 2월 2일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 2024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대학교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정기회의에서 총장들은 ‘공공의료·필수의료 인재 육성 관련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대학에서 의대를 졸업 후, 모 대학병원의 인턴을 하고 싶어도 인턴-전공의 정원(TO)이 의대 정원보다 한참 부족해 구조적으로도 수도권 의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을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어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의대진학 역시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지방 거점국립병원 인턴-전공의 정원 상향 △지역수가 제도 도입(의료취약지역 의료수가 인상 등) △공공의료·필수의료 교육과정 강화 등의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립대학육성사업 예산의 경우 주계좌를 1개로 제한하고 있어, 이자 수익을 위한 자금운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수 제한 해제를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사업비를 단기 예금 예치를 통해 자금운용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이자수입은 2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2024 1st Regular Meeting” of Korea NU10 Presidents' Council (Chair Kim Eel-hwan, JNU President) was held at Grand Hyatt Jeju on Feb. 2. Korea NU 10 presidents discussed ‘Joint Response Plan for Fostering Public & Essential Medical Personnel’ at the meeting hosted by JNU. In a situation where medical resources are significantly concentr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graduates aspiring to become interns at a university hospital where they graduated face structural irrationality. It creates a phenomenon of leaning toward doctors in the metropolitan area because the number of interns and majors (TO) compared to the high number of medical school graduates. Moreover, entering medical schools even in medical undeserved areas becomes tough due to regional talent selection based on geographic location. Accordingly, the council proposed plans such as △increase the number of interns and residents in local base national hospitals, △introduce a regional fee system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cal personnel in underprivileged areas, etc.), △strengthen public and essential medical curriculum, etc. In addition, the council agreed to request the lifting of the limit on the number of bank accounts as consensus was formed on the situation where it was difficult for universities to manage funds for interest income. This is because the budget for the national university promotion project is limited to one main account. If the project cost is operated through short-term deposit deposits, the expected annual interest income is estimated to be about KRW 200 million.



## 신임교원 연구실 안전 구축 방안 등 논의

### Discussion on Establishing Safety Measures for New Faculty Members' Laboratories

##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 2024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 Korea NU 10, 2024 2nd Regular Meeting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김일한 제주대학교 총장, 이하 협의회)는 5월 2일 충북대학교에서 2024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충북대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정기회의에서 총장들은 ‘신임교원 연구실 안전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대학은 무전공, 문과·이과를 탈피한 융복합 연구 및 학과 신설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새롭게 안전 장비 및 안전 설비를 필요로 하는 학과와 연구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23년까지는 교육부 국립대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연구실 환경개선 및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4년부터 교육부의 지원 규모는 대폭 감소돼 연구실 안전 관련 법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연구실이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 연구 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 및 연구실 사고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임교원 연구실의 안전환경 구축을 위하여 2023년 지원규모의 교육부 안전환경 기반조성사업 예산 배정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0개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회원교인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회장교)·충남대·충북대 등이 국가거점 국립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The “2024 2nd regular Meeting” of the Korea NU10 Presidents' Council (hereafter, the council), chaired by Kim Eel-hwan, President of JNU, was held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t the meeting hosted b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residents discussed measures for enhancing safety in newly appointed faculty in the research labs. Currently, universities are encountering new developments such as interdisciplinary studies, convergence research, and the establishment of departments diverging from traditional liberal arts and sciences. Especially, the number of departments and laboratories requiring new safety equipment and facilities is steadily increasing each year. Furthermore, until 2023, the Ministry of Education supported national universities in improving laboratory environments and acquiring safety equipment through a project aimed at creating safe laboratory environments. However, since 2024, implementing laws related to laboratory safety in universities has become challenging due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council empathized with the need to prioritize the health and safety of research personnel and to prevent laboratory accident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udgetary support for the secure establishment of university research laboratories. In response, the council agreed to request budget allocation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safe environment in newly appointed faculty research labs, based on the 2023 support scale, as part of the Ministry's Safety Environment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Korea NU 10 Presidents' Council is a consultative body composed of the presidents of 10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The members inclu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Busan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identi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Korea NU 10 i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universities and contribute to higher educ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 KOREA NATIONAL UNIVERSITY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 10



## 회원대학 소식

### News of Member Universities

전남대학교 CN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전북대학교 J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JNU  
Jeju National University  
충남대학교 CN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충북대학교 CBN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 KN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경북대학교 KN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상국립대학교 GN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PNU  
Pusan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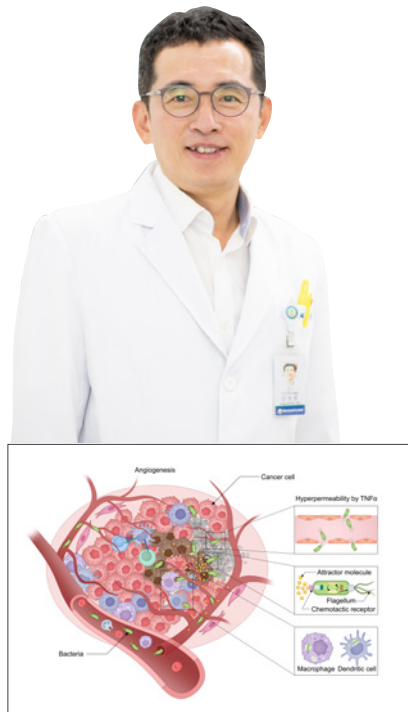


##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전남대 민정준 교수, 세계 최고 종양학 저널 논문 게재, IF(영향력지수) 78.8

CNU Professor Min Jung-joon  
Published in World's Leading  
Oncology Journal with an Impact  
Factor of 78.8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민정준 교수의 리뷰 논문  
이 세계 최고의 학술지로 꼽히는 <네이처 리뷰 임  
상 종양학(Nature Reviews Clinical Oncology)>  
에 실리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매체는 네이처 자매지로, 논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수인 IF(Impact Factor, 영향력지수)가  
78.8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학술지다. IF는 특정 연  
도에 저널의 논문이 인용된 평균 피인용횟수를 측  
정한 것으로, 저널의 중요성이나 순위를 측정하는  
핵심지표다. 2022년 기준 IF <네이처> 64.8, <사이  
언스>지 56.9를 상회하는 수치인 것이다.

민정준 교수의 논문 제목은 ‘암 면역치료를 위  
한 박테리아의 활용(Exploiting bacteria for  
cancer immunotherapy)’이다.

이 매체가 박테리아 항암제 관련 논문을 실은  
것은, 이번이 창간 이후 최초이며 그만큼 세계적  
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임을 입증한 것이다.

해당 리뷰 논문은 박테리아가 암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항암 면역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유  
전공학과 유전자편집기술, 나노기술을 이용하  
여 박테리아를 암 면역치료제로 개발하는 현황  
등 민정준 교수 연구팀에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 논문은 전남대 의과대학 민정준, 권성영, 홍영  
진 교수, 손진배 (주)씨앤크유 박사연구원, 그리고  
전남대 의과대학 박사과정 Ngo Thi Thu Hien  
이 공저자로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이 연구를 기  
반으로 전남대의 연구진이 혁신의약품(first-in-  
class)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Professor Min Jung-joon of CNU's College  
of Medicine has garnered significant atten-  
tion for his review article published in an

internationally renowned journal, Nature  
Reviews *Clinical Oncology*.

*Nature Reviews Clinical Oncology* is an academ-  
ic journal published by *Nature* and is the world's  
best academic journal with an impact factor (IF)  
of 78.8. IF measures the average number of cita-  
tions to a journal's papers in a specific year and  
is a key indicator that measures the importance  
or ranking of a journal. As of 2022, the IF of  
*Nature Reviews Clinical Oncology* is higher than  
both *Nature* (64.8) and *Science* (56.9).

Professor Min's paper is titled “Exploiting Bac-  
teria for Cancer Immunotherapy.”

It marks the first inclusion of a bacterial  
anticancer agent in this journal since its foun-  
dation, which highlights its groundbreaking  
research achievement.

The review paper analyzes the role of bacteria  
in cancer initiation, progression, and immune  
response, exploring the development of bacte-  
rial agents for cancer immunotherapy using ge-  
netic engineering, gene editing technologies,  
and nanotechnology, and containing topics be-  
ing researched and developed by the Professor  
Min's research team.

The paper was co-authored by Professor Min of  
CNU's College of Medicine, Professors Kwon  
Seong-young and Hong Yeong-jin, Dr. Son Jin-  
bae from CNCure Biotech Inc., and Ph.D. can-  
didate Ngo Thi Thu Hien from CNU's Graduate  
School of Medicine. The academic community  
views this research by CNU researchers as lay-  
ing the groundwork to pioneer “first-in-class”  
innovative pharmaceutical developments.

### 24시간 열려있는 도서관 전남대, 24시간 열람실 백야 ‘첫 선’

CNU Opens Baek-ya, a Library  
That Opens 24 Hours a Day



전남대학교가 4월 2일 대학 도서관 별관에 24시  
간 열람실 ‘백야(白夜)’를 열었다.

백야는 도서관 별관(백도) 4층에 마련된 학습 공  
간으로, 기존 열람실을 리모델링해 마련됐다. 1  
인 학습 공간은 물론, 그룹 스터디가 가능한 공  
간, 스탠드형 공간, 카페와 같은 오픈형 공간이  
있어 개인별 선호에 따라 학습이 가능하며, 태블  
릿 등 전자기기를 활용하도록 자리마다 콘센트  
가 있는 스마트형 공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날 백야를 첫 이용하는 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24시간 열려있다니 자  
주 이용할 것 같다”, “학습 공간이 잘 꾸며져서,  
학습 의욕이 높아질 것 같다” 등 24시간 열람실  
개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야는 밤에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열람실  
이라는 의미로,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붙여졌다.  
정성택 총장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공  
간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학생 여러분이다. 백

야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으로서 찬  
란한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CNU opened a library reading room, Baek-ya (白夜),  
which is open 24 hours a day in the University  
Library Annex (aka Baek-do) on April 2.  
Baek-ya was created by renovating the existing  
reading room located on the 4th floor of the  
University Library Annex. It is decorated in various  
styles to suit the student's learning styles, such  
as a space that can be used by one person or in a  
group, a stand-up type, or an open type such as a  
cafe. It is equipped with an open learning space  
with electrical outlets installed at each seat for  
students using electronic devices such as tablets.  
Students welcomed the opening of this new  
reading room, saying, “I study late into the  
night during exam periods, so I think I will use

it often since it is open 24 hours a day” and “I  
think my motivation to study will increase be-  
cause the study space is well-decorated.”  
Named through a naming competition, Baek-ya  
is a nickname for a type of reading room that is  
illuminated all day long and through the night.  
President Jung said, “It is the students who  
create the identity of this space where the  
lights are not turned off 24 hours a day. I hope  
you will dream of a brilliant future as confident  
and free CNU students in Baek-ya.”





##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전북대, 일본 1위 도호쿠대학과 ‘전략적 동반자로’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eeks Strategic Partnership with Japan's Top Tohoku University

전북대학교가 일본 최고 대학인 도호쿠대학교와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과 관련한 대학교육 혁신 정책을 함께 수립하고, 국제화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과 이동현 교무처장, 조화림 국제처장 등은 글로벌대학30 사업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 3대 국립대학 중 하나인 일본 도호쿠대학교를 방문했다.

일본 도호쿠대학교는 우리나라의 글로벌대학30 사업과 같이 일본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모이는 연구 환경을 갖춘 대학 육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국제탁월연구대학’에 유력한 후보로 선정된 대학이다.

전북대의 이번 방문은 양국 범정부 차원의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두 대학이 정책적 연대와 국제 공동연구 확대를 모색하고,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등에서 윈-윈하는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방문에서 양 총장 등 전북대 방문단은 도호쿠대학교 토미나가 총장과 우에키 대외협력부총장, 타키자와 교육및학생지원부총장을 만나 전북대 ‘글로벌사업’, 도호쿠대학 ‘국제탁월연구대학’에 관련한 대학 혁신 정책 등을 공유하고, 대학교육 발전과 국제화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 대학이 세계적인 연구 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전북대 자연과학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램프(LAMP) 사업과 관련해 도호쿠대학과 물리화 화학,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또한 각종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연구를 수행하는 재해과학국제연구소(IRIDeS)도 방문해 연구 시스템을 둘러보고, 공동연구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전북대 방문단은 도호쿠대학교 산하

의 유체과학연구소(IFS)에서 마루타 연구소장을 만나 유체과학 연구소와의 점진적인 관계 증진 및 향후 MOU 체결을 통한 공동연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도호쿠대학교의 야마구치 국제처장은 향후 양 대학의 공동연구와 다양한 전공의 교환학생들을 상호 교환하고 전북대학교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에도 도호쿠대학 학생들을 파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전북대는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일본 도호쿠대학교와 1991년 11월 학술교류협정을 처음으로 맺고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온 오랜 파트너대학이다.

Jeonbuk National University has decided to establish and pursue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policies related to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Japan's top university, Tohoku University, and to enter into a sustainable strategic partnership in internationalization.

President O-Bong Yang, Vice President of Academic Affairs Lee Dongheon, and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Affairs Cho Hwarim recently visited Tohoku University, one of Japan's three major national universities, as part of benchmarking efforts related to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Tohoku University was the only candidate selected for Japan's 'International Research



Excellence University' project, introduced last year to nurture universities with research environments capable of attracting the world's top researchers, similar to Korea's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The goals of the visit were to strengthen policy alliances and expan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between the two universities, which are both pursuing major government-supported university innovation projects, and to solidify a win-win relationship in internationalization and student recruitment.

During the visit, President Yang and th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legation met with Tohoku University President Tominaga, Vice Presiden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Ueki, and Vice President for Education and Student Support Takizawa to share university innovation policies related to Jeonbuk National University's Glocal Project and Tohoku University's

International Research Excellence University project. They engaged in in-depth discussions on collaboration in university educatio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ization.

Given that both universities aim to become world-class research universities, they discusse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 fields such as physics, chemistry, and life sciences, related to Jeonbuk National University's LAMP (Leadership and Advanced Research for the future) project to strengthen university research infra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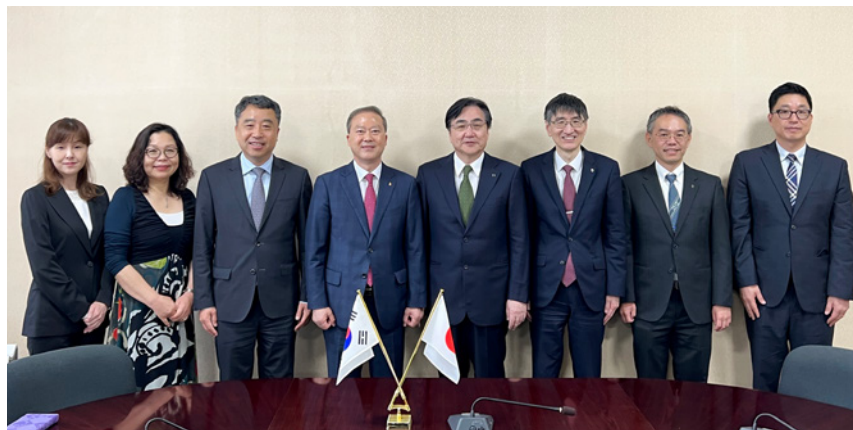
They also visited the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Disaster Science (IRIDeS) to explore research systems and discuss potential joint research projects focused on disaster simulation and data research.

Th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delegation met with Director Maruta of the Institute of Fluid Science (IFS) at Tohoku University to

discuss progressive relationship enhancement and potential joint research through future MOU agreements.

During the visit, Vice President for Education Reform and Global Engagement Masahiro Yamaguchi also made positive comments about future joint research and international programs for faculty collaboration betwee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d Tohoku. Tohoku representatives also expressed an interest in exploring the possible future participation of Tohoku University students in Jeonbuk National University's Feeling Korea program.

Jeonbuk National University was the first Korean university to establish an academic exchange agreement with Tohoku University in November 1991, and they have maintained a long-standing partnership since then.





##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 제주대, ESG 경영 선포 ESG Management Declaration Ceremony

제주대학교는 6월 3일 사회과학대학 중강당에서 ESG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학생·교수·직원 등 대학 전 구성원이 참석했다. ESG 경영실천문을 총장, 교수회장, 총학생회장,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함께 낭독함으로써 대학 전 구성원이 함께 ESG 경영을 책임있게 실천할 것임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은 제주대가 지난 5월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이를 전 대학 구성원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선포식은 1부 ESG 경영 전문가 특강 2부 △ESG 경영 전략 발표 △ESG 경영 실천 선언문 낭독 △ESG 경영 선포 퍼포먼스 △ESG 활동 사진전 관람의 순으로 진행됐다. 그간 제주대는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지역사회 저소득층 노인

에게 무료 점심 나눔행사 개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봉사활동 실시 △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투명한 운영 등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왔다. 제주대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ESG 경영 선도 대학’을 비전으로 3대 전략 방향 및 9대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ESG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실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총장 직속 ESG 위원회를 발족하여 ESG 경영 세부과제의 발굴 및 점검하는 등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일한 총장은 선포식을 통해 “학생, 교직원,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대학 비전을 공유하고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혁신을 통해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NU hosted a ceremony to declare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at an auditorium in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on June 3. JNU members, including students, professors, and staff, attended the event. The declaration of the ESG management practice statement was recited together by the JNU president, the chairperson of a faculty, the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and the president of the public officials' workplace council, signifying the commitment of all JNU members to work together responsibly in practicing ESG management. The ceremony was organized to disseminate the ESG management strategy established in May to all JNU members. The event proceeded in the following order: Part 1: ESG management expert special lecture, and Part 2: △ ESG management strategy announcement △ ESG management practice declaration statement reading △ ESG management declaration performance △ESG activity photo exhibition viewing. As one of the KNU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10, JNU has been striving to implement ESG management through initiatives such as △ managing greenhouse gas emissions △ organizing free lunch sharing events for low-income seniors in the community △ conducting volunteer activities to enhance the living environment for elderly individuals living alone and △ ensuring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the university's top decision-making body. JNU plans to develop three strategic directions and nine strategic tasks with the vision of becoming a 'leading ESG management university that creates sustainable value'. Based on this, it also intends to establish a detailed action



plan to set up an ESG management system and enhance its implementation. Furthermore, JNU plans to continue managing ESG matters by identifying and scrutinizing detailed ESG management task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ESG Committee directly under the JNU President.

### 제주대, 2024년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 JNU, Grand Prize at 2024 Best Practice in Education for Government Innovation

제주대학교의 「청년이 직접 그리는(설계하는) 지역이야기, 지역청년활동가 양성 협업 교육과정: 나플나플\* 아카데미(진로취업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부 주관 ‘2024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문제에 대한 청년 시각의 접근을 돕고 2023년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된 ‘마을활동가’로의 진입을 도울 수 있도록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됐다. 이를 위해 공동체 진입을 위한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자기 이해 기반 진로탐색 교육(8회) △지역문제 및 취창업처 발굴 탐방대 양성 교육(7회) △마을자원조사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6개소)과 협업하여 지역 청년 활동가를 발굴했고, 우수 성과 전시 및 협업사례 기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진로취업교육 ‘나플나플 아카데미’를 운영한 제주대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 및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학생과 도내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대는 지역 산업 연계 기관 연계망 구축 강화 및 프로그램 기획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년고용 거버넌스 구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일한 총장은 이번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 선정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청년 취업역량

During the ceremony, JNU President Kim Eel-hwan stated, "JNU will share its vision with students, faculty, and the local community, and will strive to be one of the KNU 10 by innovatin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structures."



강화 및 만족도를 제공하여 지역 정주를 위한 취업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한다. \* 나(청년)의 역량을 ‘Pi’us 시켜주는 ‘나(청년)만의 진로취업 교육 플랫폼

JNU has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2024 Best Practices in Education for Government Innovation' organiz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for its program 'Local Story Designed by the Young'. This program, known as the Napeulnapeul Academy (Career Employment Education), aims to enhance the job readiness of local youth activists in Jeju. The program was operat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youth's job competency in Jeju, including helping the young approach local issues and enter their careers as "village activists", which is recognized in the Korean Dictionary of Vocational Affairs in 2023. JNU provided a step-by-step capacity-building education for entering the community (△ self-understanding-based career exploration education (8 times) △ training for local issues and job start-up (7 times) △ village resource research education). Furthermore, the program fostered collaboration with six institutions across Jeju to identify and support local youth activists. It also facilitated opportunities for showcasing outstanding performance and gaining practical work experience through collaborative projects. JNU Career Employment Department/ Job Plus

Center, charged in the 'Napeulnapeul Academy' has continued to plan various programs and provide career exploration opportunities to the students and the young in Jeju with the support of Youth Policy Officer and the Employment & Welfare Center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NU plans to continuously expand the composition of youth employment governance not only to strengthen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of regional industry-linked institutions but expand program planning. JNU President Kim Eel-hwan said, "JNU is honored to be selected as the leading case for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this opportunity, JNU is committed to continuing its efforts in providing education related to local jobs, strengthen local youth employment capabilities, and provide satisfaction to exp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local residents." The 'Best Practices in Government Innovation' competition in the education sector, held annually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aims to identify and promote outstanding innovative cases that directly benefit the public education system.





##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제20대 김정겸 총장 취임, ‘CNU 비전 2040’ 선포

Inauguration of the 20th President,  
Kim Jeong-gyeom, and the Proclamation of  
CNU Vision 2040

충남대학교는 5월 9일,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충남대학교 제20대 김정겸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정겸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충남대의 2040년 비전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할 강한 대학 THE STRONG CNU, MEGA UNIVERSITY’를 선포했으며, 4M(Mobile, Multifunctional, Mixed, Mega) 전략을 바탕으로 비전(Vision)을 실천(Practice)하는 4 MVP 전략을 제시했다.

Mobile 전략은 교육부문에서 AI 기반 개인맞춤형 교육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첨단 온-오프라인 학습 플랫폼을 통한 상시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 대학기업·연구소·지역이 협력하는 공유대학 확대, AI, 코딩 등 디지털 교육 확대, 인문·예술·외국어 교육과 첨단 Neo-융복합 창의 교육 강화를 통한 충남대 고유의 교육 모델인 CNU Strong+ 모델 정립에 나선다.

Multifunctional 전략은 산업구조와 사회변화에 맞춘 인력양성 및 수요자 중심의 다기능적 대학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기초 및 응용 연구, 산학 협력, 기술 인력양성, 지역 상생발전, 평생학습, 사회공헌 등 다변화를 통한 대학 위상 강화와 국가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한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Mixed 전략은 대학과 출연(연), 기업, 지역 공공기관과의 융합과 벽허물기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Business), 연구소(Research Institute), 공공기관(Governmental Agencies) 등 외부 우수 자원을 대학에 유치하는 BRING in U 전략을 통해 글로벌 탐타이어 연구중심 교육혁신을 이끌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해 대학의 자원을 낙후된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BRING out U 세부 전략을 추구한다.

Mega 전략은 충남대의 캠퍼스를 대덕 및 보운캠퍼스는 연구중심 및 사회공헌, 글로벌 국제화 추진 거점 역할을, 세종캠퍼스는 세종충남대병원 기능 강화, 의과학 분야 및 국가정책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내포캠퍼스는 첨단그린융합 특성화, 신동캠퍼스는 바이오산업 분야 등 각각의 캠퍼스 특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캠퍼스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 글로벌 캠퍼스를 통한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On May 9t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eld the inauguration ceremony for its 20th president, Kim Jeong-Kyoum, at Baekma Hall in the Jeong Sim Hwa International Cultural Center.



During the ceremony, President Kim Jeong-Kyoum announced the 2040 Vision for CNU, titled ‘The Strong CNU, Mega University Leading the Future Society.’ He also presented the 4 MVP strategies based on the 4M principles (Mobile, Multifunctional, Mixed, Mega), emphasiz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ity's vision.

The Mobile Strategy aims to establish an AI-based personalized education infrastructure and an advanced ubiquitous online and offline learning platform to enable continuous online learning systems. It also seeks to expand shared universities that foster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businesses, research institutes, and local communities. Additionally, the strategy includes the expansion of digital education in areas such as AI and coding and the enhancement of humanities, arts, foreign languages, and advanced neo-convergent creative education. These initiative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CNU's unique educational model, the CNU Strong+ model.

The Multifunctional Strategy aims to transition to a multifunctional university system that aligns with industrial structures and societal changes, focusing on demand-driven talent cultivation. This involves diversifying through fundamental and applied research,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technical workforce training, regional mutual development, lifelong learning, and social contributions. The goals are to enhance the university's status and to fulfill its core role as a national hub university by nurturing outstanding talents for the local community and the nation. This will also involve strengthening the local community, revitalizing the regional

economy, and achiev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 Mixed Strategy enhances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integration and breaking down barriers among the universit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businesses, and local public institutions. This involves the BRING in U Strategy, which seeks to attract excellent external resources from businesses, research institutes, and governmental agencies to the university, thereby leading global top-tier research-oriented educational innovation. Additionally, the strategy includes the BRING out U approach, which establishes a feedback system to share research outcomes with the local community, utilizing the university's resources to aid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ed areas.

The Mega Strategy involves specializing each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s campuses for specific roles. First, the Daedeok and Bowoon campuses will focus on research, social contribution, and global internationalization. Additionally, the Sejong campus will enhance the functions of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pecializing in the medical sciences and training experts in national policy. The Naepo campus will specialize in advanced green convergence, while the Shindong campus will focus on the bioindustry. Additionally,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ill be established to manage these campuses organically. Furthermore, the strategy includes attracting global talent through international campuses, positioning CNU as a world-class university.





##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충북대, 베트남 우수 대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 위한 맞손 Cooperation with Vietnam's Outstanding Universities to Cultivate Global Talent



충북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베트남의 우수한 대학들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충북대는 지난 5월 베트남 톤득탕 대학, 두이탄 대학, 베트남 국립공과대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국립대학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해외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조기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다. 충북대는 이번 협약으로 톤득탕 대학, 두이탄 대학과는 해외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3년 안에 조기 졸업하고 충북대에서 석사과정을 2년 안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3+2연계과정을, 베트남 국립공과대학과는 4+1.5연계과정으로 협의했다.

연계과정을 수료하는 학생은 학석사 학위 과정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최대 5년으로 단

축할 수 있으며, 석사 과정 2개 학기에서 최대 4개 학기까지 장학금을 제공하고, 해외 대학에서 학사과정 수학 중 충북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시 양 교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어 베트남 국립대학교에서 △다양한 국제행사 공동참석 및 학술교류를 위한 교환프로그램(학생, 교직원) △학술자료 공유를 통한 공동연구 △공동 연계과정 운영(3+2 학석사 연계과정

등)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자 학술교류협정도 체결했다.

고창섭 총장은 “베트남의 우수한 대학과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우수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무엇보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 신청, 영어전용 국제학부 및 그 외 양교 간 공동연구 및 학생·교수의 교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BNU) is taking the lead in fostering global talent with outstanding universities in Vietna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May, CBNU signed a business agreement with Vietnam's Ton Duc Thang University, Duy Tan University, and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to operate a BA & MA Linked Program, and also an academic exchange agreement with Vietnam National University to attract outstanding foreign students.

The BA & MA Linked Program allows students to graduate a BA program early at overseas universities and graduate an MA program at CBNU, which can be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iculum of each university. CBNU agreed a 3+2 linked course with Ton Duc Thang University and Duy Tan University, which allows students to graduate a BA program early within three years at Ton Duc Thang and Duy Tan, and then graduate an MA program within two years at CBNU. And CBNU also agreed a 4+1.5 linked course with 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Students who complete the linked program can shorten the time required to obtain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to up to five years, get scholarships from two to up to four semesters of master's courses, and receive credits from both schools when taking graduate school classes by participating in the CBNU exchange student program during the BA courses at overseas universities.

In addition, CBNU signed an academic exchange agreement with the Vietnam National

University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m for △ exchange programs for joint attendance at various international events and academic exchanges (students, faculty members), △ joint research through sharing academic materials △ operation of joint linked programs (such as 3+2 BA & MA program).

“We will take the lead in fostering excellent global talent through active exchanges with

outstanding universities in Vietnam. Before everything else, we will accelerate the application for a semiconductor joint research institute project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for English only, joint research and exchange programs of students and professors,” said President Koh, Chang-seop.





##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강원대 정재연 제13대 총장 임명 ... 김헌영 제11·12대 총장 이임식 성료

Jeong Jae-Yeon appointed as the 13th president ...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11th and  
12th president Heon Young Kim's farewell ceremony

「강원대 제13대 총장」에 경영·회계학부 정재연 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4년 6월 24일부터 2028년 6월 23일까지 4년간이다.

정재연 총장은 ‘가치와 지식을 창조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지속 발전하는 글로벌 명문대학 KNU’를 비전으로, △실사구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도약을 위한 최상의 연구지원 △학생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 △거점국립대 최고 수준의 복지 실현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혁신 허브 대학 △특성화를 통한 캠퍼스 균형 발전 △대학 재정 1조원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재연 총장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삼일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에서 공인 회계사로 활동했으며, 2003년 3월부터 강원대 경영대학 경영·회계학부 회계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어, 강원대 기획부처장, LINC사업단 부단장, 산학협력단장과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교육부 예산 집행심의회 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 왔으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2019년) △삼일우수논문상 2회(2015년, 2020년) 수상 △홍조근정훈장(2022년)을 수훈했다.

정재연 총장은 “대학 재정 1조원 시대를 열어,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학, 특성화된 4개 캠퍼스의 균형 발전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글로벌대학’을 만들겠다”며 “구성원 모두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공감하는 총장이 되어 「강원 1도 1국립대학, 통합 강원대학교」라는 새로운 꿈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대는 6월 5일(수) 춘천캠퍼스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강원대학교 제11·12대 총장 김헌영 박사 이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헌영 전 총장은 서울대 기계설계공학과 학사 및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3년 강원대 기계의공학전공 교수로 임용됐으며, 2016년 6월부터 8년간 제11·12대 총장으로 재임하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학내 구성원들을 이끌어 「캠퍼스 혁신파크」, 「강원 지역혁신플랫폼」, 「강원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글로벌대학30 사업」 등에 연이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24대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대학활성화 특별위원장, 한국소성·가공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재연 총장  
President Jeong Jae-Yeon

Professor Jeong Jae-Yeon of the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was appointed as the 「13<sup>th</sup> president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term of office is 4 years starting from June 24<sup>th</sup>, 2024 to June 23<sup>rd</sup>, 2028.

President Jeong Jae-yeon envisions KNU as a global prestigious university that continuously develops with the region by creating value and knowledge. His major pledges were △ to create student-centered future education to cultivate realistic future talent △ to provide top research support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to become a top university where students can feel pride in △ to realize the highest level of welfare amongst regional national universities △ to become the regional innovation hub that creates new value in the region △ to create a balanced campus development through specialization △ achieving 1 trillion won in university finances.

President Jeong Jae-yeon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s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arned a master's and doctoral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the same graduate school. Then he worked a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t Samil PWC Accountings and Nexia Samduk. From 2003 March he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at the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ubsequently, he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and the local community by serving as the vice dean of the office of planning, the vice head of the LINC business group, the head of the industry-university and research affairs, the dean of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ccounting, and the chairman of the finance committee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addition, he has been actively engaged in external activities by serving as △ a member of the Tax Development Deliber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a member of the Budget Execution Deliber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 a member of the Budget Policy Adviso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resident Jeong also received △ a commendation from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2019) △ the Samil Excellent Paper Award twice(2015, 2020) △ 1st Class of the Order of Service Merit (2022).

President Jeong Jae-yeon said, “By opening the era of 1 trillion won in university finances, we will create a university where all members can feel happy and proud. Based on solid finances we will build the ‘best glocal university’ that will not be shaken by a decline in school-age population through balanced development of four specialized campuses. I will become a president who respects the value of all members, communicates, and sympathizes, and will definitely achieve my new dream of 「Gangwon 1 Province 1 National University, integrated Kang-

won National University」.”

Meanwhil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uccessfully held the 「Farewell Ceremony for the 11<sup>th</sup> and 12<sup>th</sup> President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r. Heon Young Kim」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Room of the 60th Anniversary Memorial Hall of the Chuncheon Campus on Wednesday, June 5<sup>th</sup>.

Former President Heon Young Kim earned his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from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Design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of Division of Mechanical and Biomedical Engineering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1993. He served as the 11<sup>th</sup> and 12<sup>th</sup> president for eight years starting from June of 2016. He showed outstanding leadership and led the school to achieve great projects such as 「Campus Innovation Park」, 「Gangwon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Gangwon-Chuncheon Special R&D Zone」 and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He also served as the 24<sup>th</sup> chairman of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special chairman of the National University Fostering Program TF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Technology of Plasticity and Materials Processing.



김헌영 총장 이임식  
Farewell Ceremony of President Heon Young Kim



##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경북대, 권위있는 세계대학 평가에서 최상위 랭크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세계 39위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anks at the top in prestigious global university evaluations  
39th in the World in 'THE World University Impact Rankings'**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세계 1위 차지

‘QS 세계대학평가’ 5년 연속 국립대 1위

**Top Among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for Fifth Consecutive Year**

경북대학교가 영국의 세계적인 대학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39위, 국내 3위, 5년 연속 국립대 1위에 올랐다. 지난 2020년 세계 99위로 첫 100위권 진입 이후, 5년 연속 10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항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는 대학의 연구력과 사회적지구적 책무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삼고 있다. 평가 기준은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17개 항목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대한 기여도다. 종합 순위는 필수 항목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협력(SDG17)’과 상위 3개 항목을 종합해 산출한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보다 372개 대학이 증가한 세계 125개국 1,963개 대학이 참여했다.

경북대는 평가 항목 중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세계 1위 △기아 해소(SDG2) 세계 9위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11) 세계 25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협력(SDG17) 세계 20위를 차지했다. 또한, 기아 해소(SDG2),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8), 불평등 감소(SDG10),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DG11), 육상 생태계(SDG15),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협력(SDG17) 등 6개 항목에서 각각 국내 1위를 기록했다.

또, 경북대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에서 발표한 ‘2025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립대 1위에 올라 5년 연속 국립대 1위를 차지했다. 국내 대학은 15위, 세계 대학 순위는 지난해 보다 4계단 상승한 516위를 기록했다.

경북대는 교원당 학생 비율 부문에서 세계 196위, 지속 가능성 부문에서 세계 266위를 기록했다. 교원당 논문 피인용 수, 외국인 교원 비율지표 등 대부분 지표에서도 꾸준히 점수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kes the top 100 in the world for five consecutive years, ranking No. 1 in the world in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SDG8) among the evaluation categories.

KNU ranked 39th in the world, 3rd in Korea, and 1st among national universities for the fifth consecutive year in the 2024 "THE World University Impact Rankings" released on June 12 by Times Higher Education (THE), a global university evaluation agency in the U.K. KNU has maintained a position in the top 100 for five consecutive years since entering the top 100 in 2020 at 99th place. In particular, KNU ranked first in the world this year in the category of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SDG8). The "THE World University Impact Rankings" considers universities' research ability and social and global responsibilities as important evaluation factors. The evaluation criteria comprise 17 items contributing to achiev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dopt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5. The overall ranking is calculated by combining the score in the required category of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17) together with the top three category scores. This year, a total of 1,963 universities from 125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s, an increase of 372 participating universities compared to last year.

Among the evaluation categories, KNU ranked No. 1 in the world for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SDG8), No. 9 in the world for Zero

Hunger (SDG2), No. 25 in the world for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SDG11), and No. 20 in the world for Partnerships for the Goals (SDG17).

Moreover, in terms of domestic rankings, KNU ranked No. 1 in Korea in six categories: Zero Hunger (SDG2),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SDG8), Reduced Inequalities (SDG10),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SDG11), Life on Land (SDG15), and Partnerships for the Goals (SDG17).

KNU ranked No. 1 among Korean national universities in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released by QS, a global university evaluation agency in the U.K., marking its fifth consecutive year in the top spot. KNU ranked 15th overall in Korea, and 516th in the world, up four notches from last year.

A total of 5,663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participated in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Among them, 1,502 universities were included in the rankings, including 43 Korean universities. The evaluation index includes the categories of Academic Reputation (30 percent), Citations per Faculty (20 percent), Faculty Student Ratio (10 percent), Employer Reputation (15 percent), International Faculty Ratio (5 percent), International Students Ratio (5 percent), Employment Outcomes (5 percent),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5 percent), and Sustainability (5 percent).

KNU ranked 196th in the world in terms of the category of Faculty Student Ratio, and 266th in Sustainability. KNU has witnessed its scores steadily rising in most categories, including Citations per Faculty and International Faculty Ratio.





##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경상국립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ERC)’ 후속 사업 선정 “7년간의 연구성과와 글로벌 발전 가능성 인정받아” 우주항공청, 항공국가산단, 글로벌 대학 사업과 연계한 전문R&D센터 역할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elected for Global Leading Research Center (ERC) Follow-Up Project “Recognized for 7 Years of Research Achievements and Global Development Potential” Serving as a Specialized R&D Center in Connection with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National Aerospace Industrial Complex, and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경상국립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4년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후속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후속 지원사업은 올 2월에 종료된 선도연구센터들 간 경합을 거쳐 탁월한 연구 성과와 글로벌 발전 역량을 갖춘 선도연구센터를 선정하여 향후 3년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도연구센터는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학문 분야에 대해 대학의 연구역량, 지자체·산업체·대학의 지원 의지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학 연구센터 지원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자와 연대·협력을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혁신적 기초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역할을 강화했다.

2017년 국내 최초 항공 분야 선도연구센터(ERC)로 선정된 경상국립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는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분야의 원천·응용 연구 연계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대학 산학협력의 거점전문센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글로벌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는 경상국립대가 주관하고 유니스트(UNIST), 서울대, 카이스트(KAIST), 한양대, 한국항공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현대로템(주),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처(주)ANH Structure) 등 11개의 항공 분야 핵심 기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항공기 복합재, 결빙 분야 세계적인 선도 연구 그룹인 독일 프라운호퍼ICT(Fraunhofer ICT), 미국 아이오와주립대(Iowa State University), 영국 옥스퍼드대(University of Oxford)가 해외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미래형 항공기 적용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기능·안전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글로벌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는 최근 급변하는 미래항공산업 수요

에 맞춰 미래형 항공기(전기항공기, 미래형 항공기체(AAV)) 적용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목표로 한다.

세부 주제로 △안전·다기능 열가소성 복합재 구조 건전성 및 실용 기술 △저비용·고신뢰도 안전핵심시스템 설계 및 인증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91억 3,900만 원(국고 60억 원, 지자체 12억 원, 기업 9억 3,600만 원, 경상국립대 10억 300만 원)을 투입한다.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항공우주공학부 명노신 교수(글로벌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장)는 “미래 항공산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자체(경남·진주·사천)와 참여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우주항공청, 경남항공국가산단, 글로벌 대학 30 사업 연계를 통해 글로벌 산학협력 전문 연구개발(R&D) 센터로 도약하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NU) has been selected for the 2024 Global Leading Research Center (ERC) Follow-Up Support Project,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The ERC Follow-Up Support Project selects leading research centers with excellent research achievements and global development capabilities through a competition among Science/Engineering Research Center (S/ERC), which ended in February this year, and provides additional support for the next three years. S/ERC is the highest-level university research center support project in Korea, selecting fields of study that must be intensively fostered at the national level by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university's research capabilities, local government, industry, and university's willingness to

support. Beginning this year, in particular, the project's international co-operation capabilities have been strengthened to build global research capabilities and create innovative basic research outcomes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with world-class overseas researchers.

The Research Center for Aircraft Core Technology (ACTRC) selected as the first aerospace research center in Korea in 2017, has been producing world-class research results that can be linked to high-efficiency/safety aviation core technology and has served as a centerpiece for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Led by GNU and 11 leading companies in the aviation field, including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UNIST),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KAIST), Hanyang University, Korea Aerospace University,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Hyundai Rotem, and ANH Structure.

In particular, this project includes participation from world-renowned research groups in the fields of aircraft composites and icing, such as Fraunhofer ICT in Germany, Iowa State Un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versity of Oxford in the United Kingdom. They plan to develop world-class multifunctional/safety core technologies for application to future aircraft.

The GACTLRC aims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core technologies for application to future aircraft (electric aircraft, future aircraft bodies [AAV])

to meet the rapidly changing demands of the future aviation industry. Specifically, the GACTLRC plans to develop practical technologies for the practical use of safe/multifunctional thermoplastic composite structures, and design and certification technologies for low-cost/high-reliability safety core systems. A total of KRW 9.139 billion (KRW 6 billion from the national treasury, KRW 1.2 billion from local governments, KRW 936 million from companies, and KRW 1.03 billion from GNU) will be invested over three years.

Professor Rho Shin Myong, Department of Aerospace Engineering, GNU College of Aerospace Engineering (Director of GRCAC), expressed his ambition, stating, “Now is the time when the future aviation industry is becoming full-fledged. We aim to leap forward as a global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R&D center through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Gyeongnam, Jinju, Sacheon) and participating companies, and by linking KAI, the Gyeongnam Aerospace Industrial Complex, and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미래형 항공기 개발을 위한 린치핀 핵심기술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Aircraft Development



##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 부산대 제22대 최재원 총장 취임 ‘Arise PNU, 같이 더 높게’ 부산대의 새로운 길 나서 Pusan National University's 22nd President Choi Jae Weon Inaugurated ‘Arise PNU, Higher Together’ Embarking on a New Path for PNU

부산대학교 제22대 최재원 신임 총장이 6월 11일 교내 10.16기념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Arise PNU, 같이 더 높게’를 기치로 부산대의 새로운 길을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최재원 총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산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은 부산대의 고유한 길을 걸으며 지역과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학교가 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한 대학 △학문의 다양성과 자율에 기반한 학문적 리더십을 확보한 대학 △지역과 함께하며 국가의 발전을 주도하는 대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교육의 본질은 훌륭한 학생을 길러내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

해 ‘아름다운 인성’을 지닌 학생과 ‘탁월한 지성’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적 리더십을 추구하고, 부산대가 지역과 함께하며 우리나라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 지역과 산업을 이끌 창조적 자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원 신임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5월 16일까지 4년간이다.

Choi Jae Weon, the 22nd Presi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held his inauguration ceremony on June 11 at the 10.16 Memorial

Hall on campus, declaring a new path for PNU with the slogan ‘Arise PNU, Higher Together.’

In his inaugural address, President Choi stated, “The new vision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s to follow its unique path while contributing to the region, the nation, and the world.” He emphasized that to achieve this, PNU must become: △ A university that restores the essence of education, △ A university that secures academic leadership based on the diversity and autonomy of scholarship, △ A university that leads national development while working together with the region.

President Choi further elaborated, “The essence of education is to nurture excellent students who can change the nation and the world.” To this end, he proposed two directions: fostering students with ‘beautiful character’ and those with ‘excellent intellect.’

Additionally, he expressed his intention to pursue academic leadership that contributes to social development based on the diversity and autonomy of scholarship. He also aimed to establish a creative industry-academic-research collaboration system to lead regional and national development together with the community and industry.

President Choi’s term will last for four years, until May 16, 2028.



## 부산대-부산교대 통합 최종합의 서명 2027년 3월 통합 부산대학교 출범

Pusan National University-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tegration Final Agreement Signed  
Integrated Pusan National University launched in March 2027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사업 본선정 이후 5개월여 만인 4월 23일 교내 운죽정에서 양 대학 통합에 대한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고,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통합으로 글로벌대학에 선정된 전국 대학 중 가장 빠르게 이뤄진 것이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Edu-TRIangle이 만드는 새로운 미래교육도시’라는 글로벌대학 비전을 실현하고 대학이 만들어 내는 담대한 혁신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교는 2027년 3월 1일 통합 부산대학교로 출범하게 되며, 교명은 ‘부산대학교’로 한다. 현 부산교대 캠퍼스는 ‘부산대학교 연제캠퍼스’로 불릴 예정이다.

부산교대는 통합 부산대의 16번째 단과대학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으로 재편돼 종합대학의 교육특화캠퍼스이자 개방형 캠퍼스로서 역동적 발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교육대학원·교육연수원·평생교육원 등 양 대학의 교육기능을 연제캠퍼스로 일원화하고, 유아초등·중등·특수·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종합교원양성체제뿐 아니라 교육기능을 집약한 교육특화 캠퍼스 구축 및 특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제캠퍼스를 전국 최고의 교육특화종합캠퍼스로 구축해 가는 과정은 통합 이후부터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이전부터 글로벌대학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통합 이후에 더욱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이날 서명한 합의서를 포함한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공식 제출했다. 교육부 절차를 거쳐 2024년 말 또는 2025년 초에 통합 승인이 완료될 전망이다.

On April 23, five months after being preliminarily selected for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Pusan National University (PNU) and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NU) signed a final agreement for their merger at Unjukjeong on the PNU campus. They subsequently submitted their merger application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s agreement was reached the fastest among universities nationwide selected as a glocal university through integ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lan to realize the glocal university vision of ‘a new future education city created by Edu-TRIangle’ and to pursue bold innovations created by the university.

Accordingly, the two schools will be launched as an integrated Pusan National University on March 1, 2027, and the name of the school will b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ampus will be called ‘Pusan National University Yeonje Campus’.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will be reorganized into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the 16th college of the integrated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will embark on a path of dynamic development as an education-specialized campus and open

campus of a comprehensive university.

In addition, the educational functions of both universities, including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ducational Training Institute, and Lifelong Education Center, were unified into a joint campus, and a comprehensive teacher training system covering early childhood, elementary, middle school, special, and lifelong education was established as well as an education-specialized campus that concentrated educational functions. We plan to create a specialized environment.

The process of building Yeonje Campus into the nation’s best education-specialized comprehensive campus will not be realized after integration, but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Glocal University Promotion Plan before integration, and will be carried out in earnest after integ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fficially submitted the integrated application, including the agreement signed on this day,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Following the Ministry of Education’s procedures, integrated approval is expected to be completed in late 2024 or early 2025.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 QS 세계대학평가 31위 및 취업능력 표창(Employability Champions) 수상

SNU Achieves 31st in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서울대학교가 2025 QS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에서 세계 종합 31위(아시아권 6위, 국내 1위)에 올랐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uacquarelli Symonds(QS)에서는 연구, 졸업생, 교육, 국제화, 지속가능성 관련 9개 지표로 평가한 세계대학순위를 매년 6월 발표하며, 올해는 1,503개교의 순위가 공개됐다.

서울대는 국내 대학 최초 「ESG 보고서」 발간을 비롯해 학문적 평판과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종합순위가 10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졸업생의 취업률과 글로벌 영향력을 측정하는 ‘취업 성과’(100점), 전세계 연구자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계 평판도’(98.5점) 및 ‘졸업생 평판도’(98.6점), 대학의 ESG 대응 정도를 측정하는 ‘지속가능성’(96점)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울대는 2022년에 이어 또다시 QS 취업능력 부문 표창(QS Recognition Award: Employability Champions)을 수상했다. QS는 당해 연도 세계대학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부문별 우수대학을 선정하며, 취업능력 표창은 우수한 졸업생 취업 실적 및 글로벌 평판을 보여준 대학에 수여된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proudly secures the 31st position globally (6th in Asia, 1st in Korea) in the recently published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 The QS Quacquarelli Symonds (QS) annually evaluates universities worldwide based on nine indicators that measure research strength, graduate employability, education experience, global engagement, and sustainability. This year, rankings for 1,530 institutions were released.

SNU has continuously endeavored to enhance its academic reputation and research competitiveness, including the publication of Korea universities' first ESG Report. As a result, SNU's overall ranking improved by 10 plac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SNU excelled in key areas such as Graduate Employment Outcomes (perfect score of 100), Academic Reputation (98.5), Employer Reputation (98.6), and Sustainability (96).

Additionally, for the second time since 2022, SNU received the Employability Champions award from QS. This award recognizes universities with outstanding graduate employability and global reputation.



## 서울대, ‘천원의 식사’ 캠페인 아너월 제막식 개최 SNU Holds Unveiling Ceremony for ‘1,000 Won Meal’ Wall of Honor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사장 유홍림 총장, 이하 ‘재단’)은 지난 3월 13일(수)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1층 식당에서 ‘천원의 식사’ 아너월(Wall of Honor) 제막식을 개최했다. ‘천원의 식사’ 캠페인은 학생들이 천원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천원의 식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3년 시작된 모금 사업이다.

서울대는 2015년 6월 아침 식사를 대상으로 ‘천원의 식사’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6년 3월 저녁 식사, 2018년 1월 점심 식사까지 본 사업을 확대하여 현재는 재학생 누구나 1,000원에 양질의 식사를 매끼 먹을 수 있다. 현재 하루 평균 2,400명의 학생이 천원의 식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이 시작됐다.

‘천원의 식사’ 아너월 제막식은 모금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참여자 확대와 기부문화 확산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재단은 분기마다 모든 기부자의 이름을 학생회관 아너월에 새겨 소중한 기부의 가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The SNU Foundation held an unveiling ceremony for the ‘1,000 Won Meal’ Wall of Honor on March 13, at the first-floor cafeteria of the Student Union Building on the Gwanak Campus. The ‘1,000 Won Meal’ campaign, a fundraising initiative launched in 2023, aims to sustainably run the ‘1,000 Won Meal’ program, which provides students with meals for just 1,000 won.

SNU began the ‘1,000 Won Meal’ program in June 2015, initially offering breakfast. The program was expanded to include dinner in 2016 and

lunch in 2018, allowing all enrolled students to enjoy quality meals for 1,000 won each. Currently, an average of 2,400 students benefit from the ‘1,000 Won Meal’ each day. To ensure the program’s stability, the ‘1,000 Won Meal’ fundraising campaign was initiated.

The Wall of Honor unveiling ceremony was held to express gratitude to the donors who contributed to the campaign and to encourage broader participation and the spread of a culture of giving. The SNU Foundation plans to engrave the names of all donors on the Student Union Building’s Wall of Honor quarterly, continuing to celebrate the value of these precious contributions.





## 대한민국 국가거점 국립대학교

# Information to Korea National University 10



### 충북대학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고창섭 President Ko Chang-seop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Chungdae-ro 1, Seowon-Gu, Cheongju, Chungbuk 28644, Korea

- 1951년 초급농과대학으로 시작, 2018년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도약 원년
- 2014~2018 학생만족도 1위(NCSI 조사), 세종국가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 모두의 더 나은 미래가 시작되는 충북대학교

- Beginning as a junior agriculture college in 1951, CBNU has leapt to its current status as a major university in the new capital area
- Standing as the No. 1 university in Student Satisfaction (NCSI Survey), from 2014 to 2018, CBNU has established and ran the Sejong Graduate School of National Policy
- Great Challenge for our future



###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총장 양오봉 President Yang O-Bong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4896 Korea

- 1947년 인가된 도립 이리농과대학과 전주 명륜대학, 군산대학관을 모태로 개교
-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창의인재 양성
-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2019, 2020, 2021, 2022년 학생 서비스 만족도 1위

- Founded as Iri Provincial College of Agriculture (1947), consolidated with Myeongnyun College (Jeonju) and Gunsan College (1952)
- Creative talents cultivated by innovative education platform
- Selected as the best university for student service satisfaction by KS-SQI(2019, 2020, 2021)



### 전남대학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성택 President Jung Sungtaek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77, Yongbong-ro, Buk-gu, Gwangju, 61186, Korea

- 1952년 도민 고등교육 열망으로 설립, 호남 제일의 거점국립대학교로 성장
- 자유와 평화 민주 인권 수호, 한국 민주주의 발전 주도
- 4차 산업시대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 Since its foundation in 1952 upon the desire of the local citizens for higher education, CNU has become the top flagship national university in southwestern region of Korea
- CNU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safeguarding the nation's freedom, pea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s in the 4th industrial era



###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총장 유홍림 President Honglim Ryu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 1946년 9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을 갖춘 국내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교로 출범
- 1975년 관악캠퍼스 설립으로 캠퍼스 종합화 달성
-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선도

- Establish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 Centralized dispersed campuses in Gwanak
- Played centr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정겸 President Kim Jeong-Kyoun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99 Daehak-ro, Yuseong-gu, Daejeon 34134, Korea

- 1952년 도민의 일두일미(一斗一米) 운동으로 설립, 대덕연구단지에 위치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표대학으로 성장 목표
- 2020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건립,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 설립

- Established through the rice donation campaign by every resident in 1952 in Daedeok Science Town
- The goal is to be the leading university of Korea spreading toward the world together with the residents
- Sejo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onstruction completed in 2020. The campus will be constructed in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총장 김일환 President Kim, Eel-hwan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Jeju National University, 102 Jejudaehak-ro, Jeju-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63243, Korea

- 1952년 도립 초급대학으로 시작, 도립 제주대학 승격 후 국립대학 이관
- 2008년 제주교육대학교 통합,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국제 교육기관 발돋움
- 경쟁력 있는 지식창출로 국가발전 선도

- In 1952, Jeju Provincial Junior College was founded. It became the four-year Jeju Provincial College in 1955 and designated as a National University in 1962
- Merged with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2008. Become a world-class university alongside Jeju, a free international city
- Leading national development with competitive knowledge creation



### 강원대학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정재연 President Jeong Jae-Yeon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1 Kangwondaehak-gil, Chuncheon-si, Gangwon-do, 24341 Korea

- 1947년 춘천농업대학 출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학 이념
- 춘천·삼척·도계 3곳의 멀티캠퍼스 체제 구축
- 거점국립대 취업률 1위(2021년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

- Established Chuncheon Agricultural College in 1947, with the founding spirit of the quest for truth based on practical science
- Integrated three campuses in Chuncheon, Samcheok and Dogye into a multi-campus system
- Achieved No.1 employment rate among local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Based on 2021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Employment Statistics)



###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총장 홍원화 President Won-Hwa Hong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 1946년 9월 국립대학 승격(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 대구농과대학)
- '진리·공자·봉사' 교시로 글로벌창의인재 '첨성인' 양성
- 2022 THE 세계대학 영향력 평가 국내 1위, 세계 13위

- Upgraded to National College in September 1946 (comprised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Medicine, and Agriculture)
- KNU established the concept of the talented, globally creative student, or 'Cheom-seong-in', under KNU's Educational philosophy of 'Truth, Pride, Service'
- KNU ranks 13th in THE University Impact Rankings 2022



###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총장 최재원 President Choi Jae Weon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46241, Korea

- 1946년 5월 15일 국내 최초 종합 국립대학으로 출범
- 진리·자유·봉사의 건학 이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 6개 학문분야 QS평가 세계 101~200위권, 융합과 통섭형 엘리트교육

- The nation'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university, established on May 15th, 1946
- Guided by the university's founding values of truth-freedom-service to become a global research-oriented university
- Six departments are ranked in the top 101~200th by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Elite education through the fusion and convergence of disciplines



### 경상국립대학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총장 권진희 President Jin-Hwe Kweon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33

33, Dongjin-ro, Jinju, Gyeongsangnam-do, 52828 Korea

- 2021년 3월 1일 경상국립대학교 출범(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
- 생명과학, 항공우주기계, 나노신소재·화학 분야 특성화 성공 대학
- '글로벌대학 사업' 선정...우주항공·방산 분야 글로벌 선도대학 GNU

- Launched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on March 1, 2021 (Integration of GNU and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University specializing in life sciences, aerospace engineering, nanomaterials, and chemistry
- Selected for the "Glocal University Project"---GNU, a leading global university in the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y